

“2025년 투쟁으로 노동중심 민주주의 토대 만들자” 금속노조, 13기 2년차 사업계획·요구안 확정 ... 7월 총파업 결의

금속노조가 공급망 위기 대응, 대선 시기 노동 의제 전면화 등 2025년 사업계획을 결정했다. 내란 세력 완전 청산과 노동법 전면 개정 투쟁도 결의했다.

금속노조(위원장 장창열)는 4일 오후 충북 단양 금속노조 교육연수원에서 59차 정기대의원대회(아래 대대)를 속회했다. 대의원 483명(재적 839명)이 참석해 이날 대대를 성사했다. 노조는 지난달 20일 대대를 열었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2024년 사업평가·결산보고 승인 안전만 처리했다.

금속노조는 올해 투쟁 목표로 ▲내란세력 완전 청산과 노동 중심 민주주의 토대 마련 ▲국제 기준에 맞는 노동법 개정 ▲산업별 노사관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 형성 ▲산업·노동 정책 개입 확대 ▲노동운동 사회 영향력 확대 ▲임금체계 개악 저지 및 청년실업 해소 ▲국민연금 연계한 온전한 정년 연장 쟁취를 확정했다.

또 금속노조는 투쟁 목표를 바탕으로 ▲노동 의제 전면화 등



대선 대응 ▲산업별 노사관계 쟁취 및 제도화 ▲공급망·일자리 위기 및 인구절벽 대응 ▲미조직 노동자 공세적 조직화를 중점 투쟁 사업으로 추진한다.

2025년 교섭 방침과 요구안도 결정했다. 조합, 지부, 사업장은 4월 산별중앙교섭 상건례를 시작으로 교섭에 순차 돌입한다.

노조는 ▲온전한 작업중지권 보장 ▲기후위기 대응 협약 기준 마련 등을 올해 교섭 요구로 채택했다. 생활 임금 보장과 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을 위해 월 기본급 141,300원 정액 인상(정기 호봉승급분 제외)을 요구한다. 2026년 금속산업최저임금 요구액

은 통상시급 1만1천210원이다.

정부와 국회에는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는 노동기본권, 노조할 권리보장 ▲제조업 양질의 일자리 보호·확충 ▲일터와 일상에서 안전할 권리보장 등을 요구기로 했다.

노조는 이날 노동중심 민주주의 쟁취와 내란세력 완전 청산을 위한 7월 총파업을 결의했다. 대의원들은 “윤석열 일당 복귀는 안 된다. 노동자 힘으로 국민의힘을 해체해야 한다”라며 “2025년 투쟁으로 국제 기준에 맞는 노동법을 쟁취하고, 노동 중심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측 ‘노조 탄압 열일’ 에 얼어붙은 현대제철 노사관계 금속노조, 5일 현대제철 직장폐쇄 규탄 ... “사측 의도적 교섭 해태”

현대제철 노동자들이 사측의 노조 탄압과 여론몰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성실 교섭 의무 이행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 사측의 직장폐쇄 조치를 규탄했다. 노조 광주전남, 인천, 충남, 포항지부 소속 현대제철 5개 지회장이 참석해 현대제철 사측에 노조 탄압 중단과 직장폐쇄 철회를 요구했다.

최정식 인천지부 현대제철지회장은 “지난해 현대제철 임단협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측 교섭 해태 탓” 이라고 주장했다. 최정식 지회장은 “지금 현대제철 사측은 노동자들이 현대차 수준 성과급을 요구했다, 노조 때문에 교섭이 지연됐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노조 흠집 내기용 언론 플레이에 열 올리고 있다” 라고 토로했다.

노조 인천, 포항지부 현대제철지회와 충남지부 현대제철당진하이스코지회는 2024년 8월 단체교섭 개시를 요구했다. 사측은 약 4개월이 지나고서야 처음 교섭 자리에서 나타났다. 교섭을 늦춰야 할 이유가 없었다. 사측은 교섭 해태

도 모자라 사측 제시안만 고집했다. 결국 현대제철 2024년 임금·단체교섭은 해를 넘겼다.

2024년뿐만 아니다. 현대제철 노동자들은 사측 교섭 해태로 지난 2017, 19, 20, 22, 23년 교섭도 해당연도에 마무리하지 못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반복적인 단체교섭 해 넘기기가 도를 넘었다. 의도적인 교섭 해태, 노조 길들이기” 라고 입을 모았다.

최근 직장폐쇄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최정식 지회장은 “사측이 노동조합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직장폐쇄와 노무 수령 거부에 들어갔다. 사측의 불법적, 공격적 직장폐쇄에 노동자들은 당혹스러울 따름”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지회장은 “현재 갈등 상황을 해결하려면 사측이 금속노조에 대한 탄압과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라고 힘주어 말했다.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 5곳은 2024년 단체교섭 난항에 법적 절차를 거쳐 쟁의권을 확보했다. 지난달 현대차그룹 본사 앞 결의대회와 부분 파업 등을 진행했다.

현대제철 사측의 노조 탄압은

더 심각해졌다. 2월 24일 노동조합 단체행동을 문제삼으며 ‘부분 직장폐쇄’ 를 단행했다. 당일 정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2 냉연공장 산세 압연 설비(PL/TCM) 라인을 폐쇄했다. 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당진하이스코지회 조합원들이 일하는 곳이다.

명희승 충남지부 현대제철당진하이스코지회장은 현대차그룹 노동통제전략을 문제 삼았다. 금속노조와 현대제철지회는 현대차 자본이 계열사 줄 세우기로 불공정 분배를 하고 현대차그룹 노동자들을 갈라치기 한다며 꾸준히 비판해 왔다.

명희승 지회장은 “사측이 언론에 노사 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는데, 실제 대화 요청은 없었다. 항상 노동자들만 대화를 열어놓고 있다” 라며 “회사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비전 제시도 없이 노동자 쥐어짜기만 한다” 라고 지적했다.

명 지회장은 사측에 “노조 단체행동 방해 중단하고 다시 제대로 교섭하자” 라며 “사측 주장만 강요 말고 성실 교섭 의무를 다하길 바란다” 라고 전했다.